

##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한 상 완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상임대표, 연세대 교수)

먼저 학교도서관을 걱정하고,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기치 아래 지난해 11월에 창립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를 성원해 주신 전국 도서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창립대회에 도서관인들이 보여준 응집력과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도서관인은 물론 사회, 교육 개혁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표명 등을 접하면서 이제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나 도서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공동관심사임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부터 학문이 점차 세분화되고 지식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개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

롯된 것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 스스로가 보람과 가치를 창조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자율인을 육성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자료와 시설 및 사서교사의 전문적 도움을 통해 교수학습과정을 지원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소양인을 육성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당국은 교육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새 교육, 민주교육, 열린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념과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이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학교도서관을 방치한 채, 그럴 듯한 구호와 핵심에서 벗어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방향성을 상실하여 점차 황폐화되었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달아 결국 교실붕괴를 걱정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들은 더 이상 교육당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도서관인들끼리 비분강개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행동과 실천력으로 학교도서관을 살려내고,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국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선진외국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 관중에 관계없이, 그리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학교도서관 정책과 발전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학부모나 사회로부터 학교도서관에 대한 확고한 인정을 받고, 교육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963년에 도서관전문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도서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뉘프학교도서관 프로젝트(Knapp School Library Project)를 추진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Library Power Project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재단(Dewitt Wallace Reader's Digest Fund)에서 자금을 후원하고 사서교사, 학교장, 일반교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질적 우수 교육을 구현하고 있는 의욕적인 활동이다. 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지 좋은 모형을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문제는 하루 이들의 담론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를 살려내야 할 국민적 과제로서 더 늦기 전에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문헌자료는

물론 영상, 전자통신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센터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 사서교사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독서교육을 통한 인격 도야, 그리고 정보교육을 통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과감히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학교장이나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의식을 전환시켜 나갈 것이며, 학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도서관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학교도서관 방문하기,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학교도서관 만들기, 좋은 학교도서관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현장 실천 운동을 펼칠 것이다.

끝으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각오로 전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우리 도서관인들이 응집력을 보이고, 몸소 실천할 때 관심 있는 학부모, 교사, 언론인, 정치인, 정부관계자 등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대장정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학교도서관을 살려내어 21세기 새로운 교육문화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